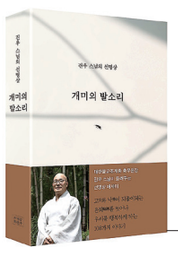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15~5/2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부처님생애(만화불교이야기1)	김정빈/최병용	솔바람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꾼달리니딴뜨라	스와미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4	불교사회복지(프라즈나총서60)불교사회복지사상과 실천의 현대적 모색	명안	운주사
5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초기불전002)*개정판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6	윤회(대원불교학술총서15)불교의 마음업우주에 대한 길잡이	로저 잭슨	운주사
7	낡은 옷을 벗어라;법정스님 미출간 원고68편 수록*법정스님원적 10주기 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8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9	달마대사어록(경전조사어록3)혈맥론/관심론/이입사행론	우학	좋은인연
10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책세상

“고통·즐거움 모두 분별…인과 진리를 알라”



개미의 발소리
진우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2만원

진우 스님이 쓴 ‘禪명상 에세이’
평안 주는 108가지 이야기 담겨
“세상에 절대 행복은 없다” 강조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저자 **진우 스님**은 대강백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담양 용흥사 몽성선원 등 제방의 선원에서 정진했으며, 풍부한 포교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를 역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시기에는 종단의 안정과 화합에 크게 기여했고, 2019년 대한불교조계종 제8대 교육원장으로 취임해서는 ‘승가교육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교육 교역자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고 결집하면서 현실 여건을 극복하는 효율적 승가교육 발전에 공헌했다. 2022년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했다. 전법과 포교의 중요성을 널리 펼치는 가운데 특히 ‘K명상과 선수행’으로 한국불교의 중흥을 발원하고 이를 온세상에 구현하기 위한 법석과 콘텐츠 발굴에 진력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담양 용흥사 주지 소임을 보던 2008년, 스님은 용구산 몽산선원을 개원하고 참선 수행에 매진하고 있었다.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 5시까지 입선을 하고 난 스님은 일과를 위해 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던 중 든 생각, ‘명상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지인들을 중심으로 명상에 대한 짧은 단상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나누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메시지 모임이 어느새 200명에 이르렀고, 백양사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는 네이버 밴드로 발전했다.

진우 스님이 최근 발간한 〈개미의 발소리〉는 2008년 한 장의 메모에서 시작해 신도들과 소통했던 결과물이다. 이에 대해 진우 스님은 책의 머리글에서 이같이 술회한다.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써올 수 있었던 힘은 불자님들이 느끼는 실생활과 참선의 괴리를 불식시켜 보겠다는 호기와 부처님 법을 잊지 않고 매일 수행해나가겠다는 다짐, 혹은 참회에 있다. 사실 이 책의 출발점은 한 장의 메모지였으며, 답답한 일이 생겼다며 달려오신 신도님들의 막무가내식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대답해드렸다.”

책에는 스님이 일반인들과 나누었던 고민과 살면서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들이 담겼다. 상담 사례뿐 아니라 선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나 어릴 때부터 읽어왔던 우화들이 동원되면서 이 시대에 선명상이 필요한 이유와 명상 수행의 방법을 우리와 좀 더 가까운 곳으로 불러들인다. 이 책이 흥미로운 이유는 오랜 시간의 참선 수행과 경전 등을 독송하며 체득한 지혜가 현실 생활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까지 해답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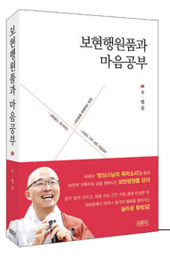
일상의 사소함에 관심을 두면서도 교리에 충실한 점도 특징이다. 불교에서는 개인의 업력에 의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진우 스님은 개인의 업력을 기분과 감정이라는 현대인들의 언어로 환원하면서, 어떤 일이든 기분과 감정에 좌우되어서 좋다거나 싫다고 고락을 분별하게 되면 인과의 업(業)이 생겨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운명과 더불어 사회의 발전과 몰락은 지금 당장 일어난 기분과 감정을 분별하는 데서 기인한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연기법을 통해 세상에 나왔고, 세상은 연기법을 통해 생겨났다. 이 법칙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옳지도 그르지도 않으며,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잘되었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 앞에 벌어진 현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분별을 일삼기 때문이다.”(20P)

말과 행동, 생각 중 어느 것이라도 좋으니 싫으니 헤아리며 기분에 집착하면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다. 끊임없이 감정이 요동치다 보면 기분이 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마음에 분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마음 바깥에 있지 않다. 인간의 삶에 감정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요즘 동서양을 막론하고 명상이 유행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진우 스님은 우리의 감정이 삶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업력과 과보 때문이라고 간파하는데, 이는 수행자로서 본분을 잊지 않은 채 세상에 참여하게 된 이의 신선한 조망이다. 그렇기에 스님을 말한다. 고락 윤회를 끊어내고 편안해지라고.

“사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 고락의 분별을 반복하며 인과의 세계에 살든지, 아니면 마음을 깨쳐서 윤회고를 벗어나든지. 인과 작용에 관해 깊이 알아갈수록 무의식은 우리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 분별을 하면 할수록 마음만 시끄럽고 괴로운 과보를 면할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게 우선이다. 마음이 편안한 이가 자신의 주인이고 세계의 주인공이다.”(393P)

누구나 쉽게 실천하는 ‘보현행원’



보현행원품과 마음공부
법상 스님 지은
민족사/ 2만3000원

너무 애쓰다 보면 꼭 탈이 난다. 마음도 애쓰면 지치고, 열정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것도 지치는 일이다. 번아웃 증후군, 가면 증후군, 착한아이 증후군.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한 곳에 힘을 쏟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힘을 줘야 할 일과 힘을 빼야 할 일은, 인생을 살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유튜브 구독자 16만2000여 명을 보유한 파워유튜버 법상 스님의 신간 〈보현행원품과 마음공부〉는 억지로 실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음 강조한다. 사는 것도 힘들고 아무도 내 마음도 몰라주는데,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애쓸 에너지도 남아 있지 않은 우리를 위한 책이다. 저자 법상 스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은 한 종교의 신행서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불교 용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 전통적인 경전 같지만, 그 단어가 주는 방편을 뚫고 너머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경전은 종교와는 상관없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존재의 핵심을 관통하는 직접적인 지혜를 선물해 줍니다. 더욱이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초등학생도 실천할 수 있을 만한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 **법상 스님**은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를 공부하다가 불심 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오랜 세월 깨달음을 찾았다. 현실에서는 20년 넘게 군승으로 재직하며 군인들에게 마음공부를 전했고, 동시에 인터넷 마음공부 모임인 ‘목탁소리’를 이끌었다. 현재는 사단법인 대원회 상주 대원정사와 해운대 목탁소리 주지로 있으며, 유튜브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를 통해 종교를 초월해 16만여 구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특히 매주 실시간으로 열리는 목탁소리 토요법회와 대원정사 일요법회는 매회 1000여 명 이상의 도반들이 온오프라인 법회에 동참하고 있다.

‘보현행원품’은 〈화엄경〉 ‘입법계품’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선재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차례로 방문해, 부처님의 참된 진리와 괴로움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묻고 답을 얻는 내용이다.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 그 여정의 마지막인 보현보살을 찾아가 여쭙자 보현보살이 그 답으로 말해준 것이 바로 ‘보현행원품’이다.

보현보살은 다른 이를 구제하고자 하는 바람 10가지와 그것에 대한 쉽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방안인 ‘행원(行願)’을 알려준다. 왜냐하면 보현보살 자체가 바로 실천적·구도적 행(行)의 보살이기 때문이다.

그 10가지란 모든 부처님께 예배 공경하고,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고, 널리 공양하고, 스스로의 업장을 참회하고,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하고, 설법하여 주기를 청하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하고,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항상 중생을 따르고, 모두 다 회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보현행원품’일까?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원 속에는 쉽지만, 매우 깊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매우 깊고 깊은 가르침을 간단명료하고 단순하면서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가르침이 쉽고 실천 가능하다고 해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상 스님은 이미 유튜브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보현행원품’을 알렸고 그것을 읽기 쉽게 고치고, 새로 쓰는 긴 작업 끝에 “누구나 읽기 쉽고, 누구나 실천하기 쉽게” 만들었다. 경전과 현실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현실을 투영한 〈보현행원품과 마음공부〉다.

이 역시 억지로 실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저절로 공명하며, ‘행원’이 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신중일 기자

연등 변천부터 문화사까지 총망라



연등문화의 역사
백창호 · 오대혁 지음
담앤북스/ 3만6000원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 거리엔 형형색색의 등불이 밝혀지고,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난 연등회다. 그러나 막상 연등회가 어떤 행사였는지,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백창호 한국전통등연구원장과 오대혁 연구이사가 펴낸 책 ‘연등문화의 역사’에서는 연등회에 대한 궁금증에 속 시원한 답을 전한다. 이 책은 한국 연등회의 역사부터 변천, 연등회의 전승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인도·중국·한국으로 이어진 수천 년의 등불 역사를 종교·정치·문학·예술 등 다양한 관점에서 두루 살피고 있다. 특히 연등을 바라보며 느꼈던 당대인들의 정서를 다양한 고문헌과 옛 그림을 통해 입체적으로 서술한 점도 특징이다.

연등문화의 고갱이를 드러낸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됐다. 1장 ‘불과 등불, 그리고 연등의 문화사’에서는 연등의 의미와 연등문화의 역사 서술 방향을 설명한다. 2장 ‘불교 연등의 기원과 인도’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통해 불교에서 연등 공양이 갖는 의미를 소개한다. 이어 인도 및 서역에서 행해진 연등회 역사와 발전 과정을 고찰한다. 3장 ‘중국의 연등문화’는 춘추전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등불 역사를 개괄한다.

4장 ‘한국의 연등문화’에서는 우리 민족의 신화와 민속에서 ‘불’의 의미를 살피고, 삼국, 고려,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까지 연등문화의 변천 과정을 담고 있다. 마지막 5장 ‘연등문화의 특징과 미래’는 통시적 흐름 속에서 연등문화의 변화와 발전적 미래를 전망한다.

저자들은 장구한 연등문화를 “연등은 밤을 밝히는 도구를 뛰어넘어 우리 인류가 무엇을 도모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훌훌 벗어 버리고 소외된 곳을 밝게 비추고 지혜로써 지구와 인류를 구해 내야만 한다는 것을 ‘연등’은 오랜 세월 가르쳐 왔다”고 역설했다.

인류의 기나긴 역사와 함께하면서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던 ‘연등문화’. 그 가치를 인정받고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록의 시작점에 연등회 백과사전이자 가이드북이라 할 만한 책 ‘연등문화의 역사’가 있다. 김내영 기자



연등회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행렬의 모습.